

蘇聯의 大學 실태와 교류 전망

金 洙 喜
(朝鮮大 外國語大學長)

1. 머리말

레닌이 이끈 볼셰비크革命前의 '러시아'는 西歐의 일원이면서도 상대적으로 落後·後進의 면면을 나타냈었지만, 西歐社會의 발전 과정을 1도 델로 삼아 近代化를 추진한 세계 최초의 국가이다. 18세기초에 본격 [가동된 근대화의 배경은 東方文化의 구축 속에서 [農業을 기반으로 형성된 家産制 성격의 專制體制가 갖고 있는 불합리와 비효율성이었으며, 이와 병행하여 전통적으로 괴로움을 당해 온 방어 능력의 향상 문제였다.

富國強兵策으로 요약된 彼得르(Peter) 大帝의 노력으로 軍이 近代化되고, 귀족을 포함한 社會成員 모두에 대한 국가 봉사의 의무화 조치와 함께 관습적으로 가정 내에 국한되었던 女性의 활동 영역 확대 유도를 통한 의식 개혁, 병기 공장 및 조선소 건설과 같은 産業化 추진, 학교 및 병원과 의과대학 건립, 그리고 1725년 科學아카데미 창설 등의 결과를 낳았다.

帝政 러시아 기간중 창설된 고등교육 시설은 근대화 노력의 산물이다. 그러나 專制君主에 의해 주도된 근대화의 특성 속에서 근대식 학교 시설 및 고등교육 시설인 科學아카데미의 설립 목적은 西歐의 합리적 정신 문화의 창달보다는 技術文明에 대한 도입의 필요성을 절실히 요청한 결과이다. 그후 1755년 모스끄바大學의 창설로

대규모 綜合大學 형태로 大學教育의 확대·보급이라는 국면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설비는 부르조아 귀족층의 專有物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부르조아지의 특권과 품위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요구되는 전문 지식 습득 차원의 언어학·역사학·법학과 같은 學科가 大學의 주종을 이루었다. 그러나 帝政體制가 19세기 중반 이후 외국 차관 도입을 통해 적극 추진한 産業化의 결과와 이에 따른 社會分化 속의 專門職 확대에 기인하여 大學設立은 계속되었다.

國家의 의지 및 社會的 요구에 의해 확대된 大學教育은 1805년 하르코프(Kharkov), 1819년 레닌그라드(Leningrad), 1834년 키예프(Kiev), 1865년 오데싸(Odessa), 1880년 톰스끄(Tomsk) 大學設立으로 이어져 기술 문명의 도입에 따른 專門人力 배출을 주요 목표로 한 西歐化 政策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專制體制의 의도와는 달리 양상에 매를 맞은 교육 받은 귀족층이 政治·社會·宗敎的 불합리성을 성토하고 사회 전반의 改革을 부르짖고 나선 활동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여기서 러시아 大文豪들의 집필 활동 역시 사회 개혁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革命 엘리트들의 집요한 의지와 열정으로 걸과한 1917년의 볼셰비크革命은 高等教育의 성과로 평가하여도 결코 지나친 표현이 아니라고 본다. 볼셰비크革命은 교육 성과로 형성된 共產指向

엘리트들에게 近代化의 주도권이 이전되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共產體制의 등장이 農業에 기반을 둔 기존 사회 질서를 工業秩序로의 급속한 社會·文化·經濟的 전환이라는 특성을 노출시켰다. 그리고 政治的으로는 모든 權力이 견고하게 조직되어 투쟁적 階序體系로 中央集權化된 소규모 집단 형태인 單一政黨의 수중에 집중된 현상을 보였다. 共產黨만이 진리의 존재이며 과학적 예측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한 후, 全權을 스스로 부여받은 共產黨은 理念 및 現實的으로 설정된 목표에 준해 社會 全資源을 勳員方式으로 관리하는 특성을 일반화하였다.

이같은 共產體制의 특성 속에서 教育은 黨이 설정한 근대화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는 능력 부여 수단으로 전락되었다. 本稿는 蘇聯에서 教育이 근대화 및 발전 지향 수단이라는 이해 속에서 黨이 정한 목표에 따라 표출된 教育實態를 정리하는 接近方法을 택하였다.

2. 國家的 建設目標와 大學設備

볼셰비키의 목표는 물질적 풍요와 평등으로 특징되는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社會樹立에 있었다. 그러나 革命後의 러시아 상황이 이상과 같은 理想的 목표를 실행하기 어렵게 만들었으므로 결국 볼셰비키黨은 자신의 권력 유지에 우선 목표를 두었다. 이같은 대표적 조치가 國家利益의 손상에도 불구하고 獨逸과 맺은 브레스트-리톱스크 講和條約이며, 더우기 이데올로기적 모순의 인정 속에서 단행한 新經濟政策(NEP)이다. 이들 조치를 통해 경제가 회복되고 민심이 수습된 후 볼셰비키黨은 통치의 정통성 문제를 정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黨 指導層 내의 權力鬭爭과 결부되어 스탈린에 의해 정리된 黨의 국가 건설 목표는 ‘工業化된 社會主義 社會建設’이었다. 다시 말해 ‘共產社會 건설’을 궁극 목표로 하면서 동시에 資本主義 諸國의 포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풍요로운 복지 국가 건설을 위한 중간 목표로서의 ‘工業化’ 目標을 설정한 것이다.

볼셰비키 體制 등장과 1920년대말 스탈린에 의해 확정된 국가 목표 수립 과정에서 大學教育은 보조적 성격을 띠고 변모하였다. 革命後 大學內

에서 표출된 두드러진 변화는 입학 자격에 관한 것이었다. 이는 社會主義의 平等原則에 준하여 개선된 것으로 과거 有產階級의 특권이었던 高等教育이 노동 계급에게도 개방되었으며 少數民族 출신 성분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女性에게도 教育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이에 더하여 勞動者들에 대한 특별 배려 속에서 大學 내에 ‘노동자’ 학급 설립에 관한 法令이 1920년 9월에 발효되어 일반 學科와 동등한 자격으로 노동자들에게 대학교육의 혜택을 베푸는 것이다.

革命 직후 볼셰비키 體制의 장래 설계와 부합된 중점 육성 학과에 대한 조치가 뒤따랐다. 이는 自然科學 敎科目에 대한 강조로 나타났으며 大學에 生物學·物理學·化學·機械學·電氣工學科들이 대거 설립되는 결과를 낳았다. 아울러 社會科學 分野는 본질적 변화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 즉, 탐시즘에 바탕을 둔 사회과학 敎育을 통해 맑스主義 理論家·外交官·史學者·經濟學者들을 양상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敎科目의 變化로 인해 과거의 역사와 언어학과 교수들이 經濟學·史學·政治學·法學科로 흡수되는 현상도 보였다.

共產主義에 바탕을 둔 새로운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분야 전문 직업인의 수요 충족을 위해 설립된 大學은 1918년에서 1920년 사이에 설립된 따쉬켄트(Tashkent), 트빌리시(Tbilisi),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예레반(Yerevan), 리가(Riga) 및 빌니우스(Vilnius)에 위치한 勞動者 綜合大學과 같은 15개 大學에 이른다. 그후 스탈린의 권력 투쟁 승리 후 5개년 計劃 형식으로 본격 가동된 産業化 요구에 발맞추어 1927년 싸마르칸드(Samarkand), 1934년 까자흐(Kazakh), 1940년 페트로자보드스크(Petrozavodsk) 大學이 설립되었다. 이렇게 급격히 數的 증가를 보인 또다른 원인은 학교 체계의 多機能化(Polytechnization) 政策에 따른 多機能 高級人力 육성 목적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호루시초프의 계승 이후 大學의 數的 증가 역시 괄목할 만한 실적을 기록했다. 호루시초프의 産業化 추진 세부 정책은 消費財產業 육성을 통해 스탈린時代에 내핍으로 고통받아 온 人民을 위로하고 高揚된 社會主義 社會를 실감하도록 하

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소비재 산업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료 공급을 위해 農業이 육성되었으며, 工業部門에서는 自動化와 電化 計劃을 수립하고 과감한 추진력을 보였다. 아울러 현장 실습을 강조한 教育指針과 시베리아地域의 자원 개발 및 복합 공업 육성 목적에서 1956년부터 1975년 사이에 28개 大學이 신설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蘇聯은 1977년을 기준으로 모두 56만 명의 대학생을 갖춘 65개 大學을 보유하게 되었다.

蘇聯의 大學은 共產社會 建設 책무와 科學 및 學究的 연구 센터로서의 역할과 연계되어 발전하였다. 大學에서 이룩한 학문적 성과는 質 높은 전문가와 교사 훈련, 그리고 교수법에 있어 진보된 원칙 및 방법 개발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1976년을 기준으로 蘇聯의 大學은 105개 學問分野의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다. 아울러 일개 대학에는 통상 4개에서 16개 學科가 있으며, 널리 보급·설치된 學科는 歷史學·言語學·法學·經濟學·機械學·數學·化學·地學·生物學·物理學·地理學·地質學科 등이다. 地方大學의 성격을 띠고 있는 加盟共和國들의 大學은 地方經濟 및 文化的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工學 및 工業技術學·農學·農業工學·林學·木材工業技術學科 등을 갖추고 있다.

蘇聯의 大學은 다른 고등교육 기관들 중에서 가장 수준 높은 專門知識을 제공하고 있다. 5년제 교육 기간을 택하고 있는 大學의 학습 방법은 教授 및 指導教師의 감독하에 학생들에 의해 수행되는 학문 연구 방식을 기본으로 하여 敎科目別로 이미 출판된 논문에 대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실험 연구 결과를 요약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밖에 세미나 방식으로 보고서를 읽고 토론하는 수업 방식도 행해지고 있다.

大學의 학습 내용은 學科別 특성과 목표에 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蘇聯은 소비에트體制에 적합한 나름대로의 특성과 근대 경제에 어울리는 복합성의 기준 설정으로 필수 과목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고 있다. 이들 필수 과목은 社會科學, 外國語, 生産實習, 體育과 軍事訓練이다. 여기서 복합성을 내포하고 있는 社會科學 科目은 政治的 감각을 갖추기 위

한 목적에서 政治經濟 및 맑스主義 哲學을 핵심 주제로 다루고 있다.

大學 卒業時에 행해지는 절차는 卒業論文 작성과 작성된 논문의 國家委員會 제출 및 통과 형식을 거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수한 논문은 학술지에 게재·출판되는 영광을 갖기도 한다. 大學 卒業生들은 연구 기관, 高等 및 中等學校, 文化機關, 工場의 실험실, 國家 및 黨 組織에 진출하여 근무하게 된다.

3. 大學教育의 國家的 機能

共產社會 건설과 産業化에 필수적인 전문 인력의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蘇聯 大學은 學問과 技術進歩에 기여할 뿐 아니라 科學·技術 및 文化的 진보의 선봉에 위치하고 있다. 이에 따른 大學의 1차적 기능은 고등교육 기관을 위한 철학·수학·물리학·생물학·화학·역사학·정치경제학 부문의 과학자, 학자 및 교사를 훈련하는 데 있다. 이같은 1차적 기능에 의거하여 고등교육 기관인 大學에 남아 연구를 지속하는 졸업생 수는 1975년 현재 13,000명 이상으로 전체 졸업생의 23%를 점하고 있다. 大學의 2차적 기능은 高等 및 專門中等教育機關의 사회과학·인문과학·자연과학 분야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기본 및 고등 훈련 센터로서의 역할이다. 끝으로 제3차적 기능은 다양한 국민경제 부문, 과학 기관들과 행정 부처들에 고용된 고급 전문 인력에 대한 훈련 센터로서의 기능이다. 蘇聯에는 1976년을 기준으로 교사들에게 진보된 고등교육 훈련을 8개 研究所와 25개 大學 學科들이 이를 담당하여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蘇聯 敎師의 약 42%가 매년 大學에서 고등교육 훈련을 받고 있는 것도 괄목할 만한 사실이다. 이밖에 主導的인 蘇聯의 大學이 教育的인 方法論 훈련 기능도 수행하는데, 이는 고등교육 기관에서 가르치는 敎科目에 대한 연구 계획 진행표 및 교과 내용이다. 이에 부가하여 大學은 蘇聯 高等教育機關에서 가르치는 理論的 敎科 支援을 위해 敎材 및 학습 보조 재료를 만들고 있다. 교재 제작 활동은 일반 대학 및 교육학 연구소, 중등교육 기관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자연과학과 인

문과학 분야에 속하는 것들이다.

蘇聯에는 아카데미와 연루된 전문 연구소들이 많이 있지만, 大學은 科學 및 文化의 주요 연구 센터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大學은 科學 및 技術進歩에 기여하고 있는데, 특히 주요한 과학적 문제 및 새로운 연구 영역의 문제 해결에 두드러진 성과를 올리고 있다.

蘇聯 大學에는 學者들이 그룹을 형성하여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다양한 敎科別 學派들이 있다. 이러한 부류의 주요 학파로는 레닌그라드·끼예프·뜨빌리시·까잔大學에 존재하는 數學學派이다. 특히 數學과 機械學 내의 많은 학문적 추세가 그들 자신의 專門研究所와 함께 독자적인 교과를 확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研究所들은 레닌그라드大學의 수학과 기계학연구소, 모스크바大學의 기계학연구소, 까잔大學의 數學研究所이다. 이러한 연구소들 중 까잔·레닌그라드·하르코프大學의 化學學派는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으며, 예레반·레닌그라드·뜨빌리시大學의 문헌학과 언어학과도 유명하다. 蘇聯 大學에서 주목받고 있는 연구 분야는 이론물리학·고체물리학, 그리고 다른 분야의 물리학이다. 아울러 大學에서 획기적 성과를 올린 분야는 분자생물학·유전학·미량생물학·생물화학·생물물리학과 같은 새로운 영역이다.

敎育 및 組織面에 있어 蘇聯 大學의 質의 수준은 일반적으로 美國 다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군사 및 우주 경쟁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수학·물리학·화학·생물학·기계학 분야는 美國을 다소 앞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흐루시초프에 의해 결정된 첨단 과학 분야 경쟁의 능동적 참여, 그리고 西歐 先進諸國의 공업 기술 수준을 따라 잡자는 구호 속에 강조된 綜合技術敎育 육성 노력에서 1958년부터 시행한 재능있는 학생들에 대한 수학·과학 및 외국어敎育 집중 지원의 덕이다. 더욱이 이같은 과목에 대한 집중 지원이 브레즈네프時代에 와서 더욱 확대되었다. 원인은 蘇聯 經濟의 기술적 近代化 요구에 발맞추어 강화된 敎育 훈련의 책무와 중요 교과에 대한 학습 동기 提高策의 일환에서 결과한 것이다. 이같은 敎育 성과와는 대조적으로 社會科學 分野는 共產主義 틀 속에서 편

협된 사고와 분석 자세를 고집함으로써 비합리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즉, 政治經濟學이 오늘날의 고도 産業社會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하는 데 그 한계성을 이미 실증했기 때문이다.

敎育學에 대한 비중은 1943년 모스크바에 설립된 敎育學아카데미에 집중되어 있다. 이 아카데미는 12개 研究所를 보유하고 敎育政策 樹立에 참여한다. 그리고 每 加盟共和國에는 특별 敎育연구소가 있다. 敎育에 대한 蘇聯의 높은 관심이 1969년 高等教育 分野의 새로운 法습을 통해 경제 문제와 敎科計劃에서 개별적인 敎育과 관련 아카데미 참모의 책무를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과 장치가 敎育의 質的 向上을 가져 왔다.

4. 베레스트로이카와 敎育改革

大學敎育의 量과 質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브레즈네프體制의 장기 침체 해결 방안이 적극적 자세와 대규모의 구조적 敎育改革으로 이어진 시기가 1984년 유리 안드로보프體制의 출범과 때를 같이하고 있다. 개혁의 핵심은 7세보다는 6세에 학교 생활을 시작하도록 하고 10년제 學校制度를 11년제로 연장하며 '勞働敎育' 성분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大學 1학년 생활부터 학생들을 일부 숙련 노동훈련 계획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1986년 고르바초프의 베레스트로이카 수행에 의해 보다 급진적인 敎育改革이 쏟아져 나왔다. 폭 넓은 敎育 개혁은 국가를 前向的의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市民을 敎育하는 데 야기된 부적절성 실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베레스트로이카의 目標은 蘇聯을 國際市場에서 보다 경쟁적 지위로 끌어 올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 蘇聯의 기술 및 숙련도가 西歐에서의 발전 속도와 보조를 유지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실행적인 측면에서 學者와 研究員은 실험을 위한 장비가 필요하며, 노동자들은 새롭게 출현하는 기술력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베레스트로이카의 이념적 토대는 獨立的인 思考와 公開討論이

다.

전통적으로 蘇聯의 교육은 教師와 體制의 權威를 강조해 왔다. 그리고 學生들은 모든 문제에 정확한 해답이 있다고 교육받아 왔다. 그러나 페레스트로이카下에서의 蘇聯 教育은 獨立과 創造性을 새롭게 강조하는 국면을 맞게 된 것이다.

고르바초프時代의 教科課程은 學生들에게 전례 없는 유연성을 허용하고 있다. 아직도 획일적인 교과과정이 존재하지만, 學生들의 능력과 향후 진출 방향에 준하여 제한된 선택 과목을 8학년부터 11학년까지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같은 결과로 外國語, 科學 및 數學과 같은 그들의 특수 분야 재능 개발 노력에 획기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학교가 이같은 특수 분야에 관심을 보일 때, 엘리트에게만 혜택을 베푼다는 시각에서 비판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中等學校에서의 이같은 專門化 教育이 教育의 基準이 된 것이다.

技術에 대한 천시 현상은 전통적으로 8학년을 마치고 시험을 통과한 학생은 正規 中等學校에 진학하지만, 불합격자는 기술 교육을 받아 왔던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蘇聯 經濟와 教育體系가 무시해 온 工業技術이 보다 권위 있는 기술 훈련을 습득시키려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蘇聯은 분명 科學과 技術部門에 있어 西方世界에 뒤쳐져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고르바초프는 學校 시설에 컴퓨터 장비를 증대시켜 왔다. 아직 보급율이 저급한 상태에서 선택 과목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조작 가능자가 현저히 늘고 있는 추세에 있다.

教師들에 대한 사고력 및 기술 보강 목적의 의무 교육을 통한 변화도 적극 모색되고 있다. 教師들은 5년마다 教育學 研究機關에서 주관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새로운 국가 목표 지원을 위한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보강시키고 있다. 또한 다수의 教師들은 教育方法 研修 및 지식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海外研修의 혜택을 받고 있다.

蘇聯의 教育風土 변화 정도는 外國과의 교류 계획에 의해 파견되는 學生 數의 증가 현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는 西歐思想과 관습에 대한 배타심(xenophobia)으로 고립되어 왔다. 이러한 고립 상태에서 科學技術의 後進

性 극복 노력으로 西歐文化에 의해 단행된 '西歐를 向한 창(西歐文物을 받아 들이기 위해 건설된 레닌그라드市가 대표적 역할을 했음)' 건설이 거센 반발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國際主義 증대 추세를 용인하는 단계에 와 있다. 蘇聯邦 公共教育國家委員會는 美國, 日本, 西獨, 英國, 프랑스 및 여타 국가들과 人的 交流 計劃을 실행하여 기술 개발과 他國의 文化를 이해시키고 있다.

蘇聯의 '高等學校아카데미協同計劃(high school academic partnership program)'은 英語를 배운 고등학생들을 1개월 기간으로 美國 家庭에서 생활하며 美國人이 주관하는 학교 교육에 참여시키고 있다. 美國 學生들 또한 역으로 蘇聯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고등학교아카데미協同計劃'에 의거하여 1988~'89년에 교육을 받은 학생 수는 400 명이며, 1989~'90년 기간에는 약 700 명이 교류될 예정이다.

페레스트로이카下에서의 教室 분위기도 새로운 民主風土를 노출하고 있다. 이는 教師主導方式의 講義로부터 탈피하여 學生中心의 학습 지도 방식으로의 변모 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教育官僚와 教師들은 과거의 권위주의 방법을 고수하고 있다고 外國 訪問으로 속박 없는 표현 방법을 체득한 다수 學生들이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을 통해 蘇聯은 個人의 個性 開發과 質을 높일 수 있는 개방 교육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합리적 방법이 곧 西歐 發展速度에 부합될 수 있기 때문이다.

5. 交流 展望

蘇聯 大學과의 交流 實態는 이미 폭 넓게 진행 중에 있다. 단지 교류 방법의 미숙과 대상 선정에 관한 정보 미흡, 그리고 장기 체류에 대한 法的·意圖的 이해결 사항이 존재하며 신분 보장 문제가 학술 교류의 최대 장애 요인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장애 요인이 조만간 모두 해소될 전망이며, 더우기 兩國 모두가 최근 總力戰 형태로 대량의 人的·物的 交流를 성사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學術交流의 조건으로는 먼저 우리측 입장에서 효과적 발전을 기할 수 있는 物理學·化學·生物學·機械學·數學·言語學 등과 같은 理工系列 중심의 교류가 바람직한 입장이다. 이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분야는 實生活에 응용되는 電子工學系列이 있지만, 이보다는 상호 관심 대상인 社會科學系列의 經濟開發 및 經營學, 語文系列의 露文學·史學·國際政治學·哲學, 體育·藝術部門의 교류를 예상할 수 있다.

상호 보완적인 입장에서 學術交流가 가능한 系列을 조사하고 관심을 표할 수 있지만, 政治的 의도를 배제한 展望은 허구적 성격을 띤다. 현재 蘇聯이 우리에게 관심과 성의를 보이고 있는 學

術交流活動은 순수한 학술 교류 차원을 넘어 과거에 부각된 蘇聯의 나쁜 이미지 쇠퇴, 다방면의 협력 분위기 고양을 통한 경제 협력 촉진, 國際 및 平和主義를 표방한 사실상의 영향력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도 상대적으로 蘇聯과의 여러 協力基盤 구축을 통해 統一을 앞당기고 새로운 市場進出 및 資源調達을 기대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

현 상황에서 學術交流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목적의 보조적 위치에 머무르고 있다는 인상이지만, 폭 넓고 깊이 있는 순수 교류가 실현될 때 러시아인들이 강조하고 있는 ‘友誼의 꽃’이 兩國間에 필 것으로 확신한다. *